



강풍 걱정 사라진 류현진, 몸쪽 승부 살아난다

토론토 지난해 마이너리그 구장 사용...바람 심해 우타자에 잦은 장타 허용 올 시즌 돔구장 로저스 센터나 바람 적은 TD볼파크서 홈 경기 가능성 커져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토론토 블루 제이스의 에이스 류현진(34·사진)은 새 시즌 좀 더 편안한 환경에서 공을 던질 것을 보인다. 토론토 구단이 새로운 돔구장에서 홈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캐나다 매체 TSN은 2일(한국시간) "토론토 구단이 새 시즌 살렌필드에서 홈 경기를 치를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캐나다 정부 결정에 따라 토론토 로저스 센터 혹은 더니든 TD볼파크에서 홈 경기를 치를 것"이라고 전했다.

토론토는 지난 시즌 마이너리그 경기장인 미국 뉴욕주 버펄로의 살렌필드에서 홈 경기를 소화했다. 류현진은 살렌필드에 부는 강풍 문제로 고전했는데, 새해엔 이런 걱정 없이 공을 던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타자를 상대로 마음 놓고 몸쪽 공을 던지게 됐다.

◇토론토, 마이너리그 구장과 작별
토론토 구단은 지난해 마이너리그 구장인 살렌필드를 임시 홈구장으로 활용했다.

캐나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문제로 인해 국경을 봉쇄했기 때문이다.

MLB 30개 구단 중 유일하게 캐나다에 홈구장이 있는 토론토는 로저스 센터를 홈구장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됐고, 이에 새 홈구장을 모색했다.

토론토 구단은 당초 스프링캠프 시설인 플로리다 더니든 TD볼파크를 홈으로 활용하려고 했지만, 플로리다주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살렌필드를 선택했다.

새 시즌엔 상황이 변했다. 백신이 개발되면서 캐나다 정부의 국경 봉쇄 정책이 변경될 여지가 생겼다.

토론토 구단은 새 시즌 로저스 센터를 홈구장으로

활용하기를 바라고 있다.

로저스센터 활용이 여의치 않을 경우엔 더니든 TD볼파크가 대체 홈구장 후보 1순위다.

찰리 몬토요 토론토 감독은 최근 TD볼파크 홈구장 활용에 관한 질문에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야구장 중 하나"라며 "TD볼파크 인프라에 만족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토론토는 지난해 거액을 들여 TD볼파크 개보수 공사를 끝냈고, 다양한 시설을 구축하기도 했다.

◇바람 영향 벗어난 류현진, 몸쪽 승부 편해졌다
살렌필드의 경기 환경은 그리 좋지 않았다. 특히 좌완 투수 류현진에겐 더 그랬다. 바람 문제가 가장 컸다.

살렌필드가 있는 미국 뉴욕주 버펄로는 북미 오대호의 하나인 이리호와 접해있어 바람이 많이 분다. 살렌필드에는 보통 풍속 10 mph(약 초속 4.5 m) 정도의 바람이 우익수 쪽에서 좌익수 쪽으로 부는데, 류현진이 등판한 경기에서도 그랬다. 지난해 9월 8일 뉴욕 양키스 전에선 무려 16mph의 강풍이 몰아치기도 했다.

류현진은 이 바람 때문에 많이 고생했다. 우타자

를 상대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류현진이 우타자를 상대로 몸쪽 공을 던지면, 상대 팀 우타자들은 당겨치기 일변도로 대응했다. 외야 플라이 정도의 타구는 바람을 타고 펜스를 넘어가기 일쑤였다.

이런 문제 때문에 류현진은 우타자를 상대로 원활한 몸쪽 승부를 펼치지 못했다. 제구력으로 승부하는 류현진에게 수 싸움 문제는 치명적이었다.

경기장 환경 문제는 개인 성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류현진은 지난해 살렌필드에서 30이닝 동안 홈런 4개를 허용했다. 원정경기(37이닝 2개)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장타를 허용했다.

새해엔 이런 걱정을 덜 가능성이 커졌다.

돔구장인 로저스 센터, 바람이 많이 불지 않는 TD볼파크의 경기 환경은 류현진의 투구 내용에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류현진은 지난해 TD볼파크에서 열린 두 차례 시범 경기에 등판해 6⅓이닝 동안 6개의 탈삼진을 기록하며 1실점으로 틀어막았다. 특히 볼넷은 단 한 개도 허용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도쿄올림픽 D-200...구슬땀 흘리는 태극전사들

한국 금메달 7~8개로 종합 10위 목표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의 시계는 도쿄올림픽 개막을 7개월 앞에 두고 빠르게 돌아간다. 4일도 도쿄올림픽 개막이 2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코로나19 여파로 1년 미뤄진 도쿄올림픽이 올해엔 정상 개최될지 여전히 불투명하지만, 태극전사들은 구슬땀을 쏟아내며 묵묵히 올림픽을 준비 중이다. 올림픽이 이미 한 차례 연기된 터라 더 늘릴 것도 없다.

대한체육회는 코로나19로 선수촌 취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현재 입촌 훈련 중인 기계체조, 수영, 유도, 펜싱 종목 국가대표를 대상으로 도쿄올림픽을 앞둔 각오와 국민들에게 보내는 새해 인사를 영상으로 담아 2021년 첫날 공개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탓에 지난해 3월 도쿄올림픽이 1년 연기된 뒤 곧바로 선수촌이 잠정 운영 중단에 들어가자 국가대표 선수들은 보급자리를 떠났다가 지난해 11월에야 다시 진천선수촌에 입촌했다.

신치용 진천선수촌 총장은 "아직 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세계 예선 일정이 많이 남았다"며 "일정에 맞춰 경기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선수들이 어려운 상황을 인내하면서 준비 중"이라고 현재 훈련 분위기를 전했다.

신 총장은 "일선과 (메달 경쟁에서) 겹치는 종목이 많아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한국 선수단이

금메달 7~8개를 획득해 종합 순위 10위 이내 입상을 목표로 하겠다"고 각오를 보였다.

여자 기계체조 도마 간판인 여서정(19)은 "올림픽이 1년 미뤄졌지만, 그만큼 더 준비해서 성장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한국 여자 수영의 간판 김서영(27)은 "도쿄올림픽에서 내 기록을 깨는 게 목표"라며 "아쉬움 없이 경기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겠다"고 했다.

한국 남자 수영의 새 희망으로 자리매김한 황선우(18)도 "올림픽 개막이 7개월 남았는데,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성과를 보여드리겠다"며 "현재 영상 분석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황선우는 2020년 11월에 열린 경영 국가대표 선발대회에서 남자 자유형 100m 한국기록을 48초 25로 새로 쓰고, 자유형 200m에서는 세계주니어 신기록(1분45초92)을 수립해 차세대 간판으로 떠올랐다.

일본의 국기(國技) 격인 유도 국가대표 선수들의 각오는 더욱 남달랐다. 일본의 심장에서 열리는 한일전에서 기필코 승리하겠다는 결연함이 묻어났다.

태극전사들은 국민들에게 많은 응원을 당부하고, 코로나19라는 힘든 시기를 겪은 만큼 모두에게 행복하고 좋은 일로만 2021년이 가득 차면 좋겠다고 새해 인사를 했다. /연합뉴스



뒤로 쪽 뻗었지만...'아속한 공' 노스캐롤라이나 타르 힐즈의 앙투안 그리니 3일 미국 플로리다주 하드 록 스타디움에서 열린 열린 텍사스 A&M 애기스와 대학 미식축구 오렌지 볼 경기에서 패스한 공을 놓치면서 넘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김하성, 최대 5년 424억원에 MLB 진출

샌디에이고와 계약 완료

김하성(26)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계약기간 4+1년에 최대 3900만달러(약 424억3000만원)를 받는 조건에 계약 완료했다.

김하성의 에이전트 에이즈팩코퍼레이션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하성이 역대 KBO 타자 포스팅 최고액을 경신하며 메이저리그에 진출했다고 발표했다.

김하성은 먼저 4년간 2800만달러(304억6000만원)를 보장받는다. 타석 수와 연관된 인센티브를 합치면 최대 3200만달러(348억1000만원)를 받을

수 있다. 4년 계약 기간 종료 후 상호 옵션을 실행하면 몸값 총액은 최대 3900만달러로 치솟는다.

에이즈팩코퍼레이션 유현수 대표는 "선수과 구단, 에이전트 모두 만족할만한 계약을 했다"며 김하성의 메이저리그 적응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하성의 소속팀 카움 히어로즈는 552만5000달러, 약 60억1000만원의 이적료를 받는다.

KBO 선수가 포스팅 시스템을 거쳐 메이저리그 구단과 2500만~5000만달러 사이에 계약하면, 전 소속 구단은 2500만달러의 20%(500만달러)와 나머지 금액의 17.5%(52만5000달러)를 이적료로 받는다. /연합뉴스

광주도시공사 핸드볼 새해 선물 '시즌 4승'

강경민 등 주전들 고른 득점
골키퍼 우하람 세이브 돋보여
인천시청에 36-29 승리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팀이 새해 첫날 경기에서 시즌 4승을 신고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1일 2020-2021 SK핸드볼코리아리그 2라운드 인천시청전에서 36-29로 승리했다. 이로써 승점 11점(4승3무3패)을 기록, 리그 4위에 랭크됐다.

승리 요인은 강경민 등 주전들의 고른 득점과 골키퍼 우하람의 세이브였다.

강경민이 13득점, 김지현은 6득점, 서아루-원선필이 각각 5득점, 한승미는 3득점을 기록했다.

골키퍼 우하람은 20세이브(방어율 46.5%)를 기록, 경기 MVP로 선정됐다. 최근 서울시청에서 이적한 골키퍼 손민지는 이날 역대 5번째로 개인 통산 1400세이브를 달성했다.

광주도시공사의 유니폼을 처음 입은 정현희(RB)는 2득점을, 올해 입단한 이슬기(LB)도 후반에 투입돼 2득점을 올리며 신고식을 치렀다. 정현희는 최근 최지혜와 맞트레이드로 도시공사에

등지를 들었다.

2020-2021 SK핸드볼코리아리그 2라운드에서 4승을 올린 광주도시공사는 남은 10개 경기에서 팀 창단 이래 최다승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도시공사는 코로나19로 2라운드 14경기로 축소된 지난 시즌에서 4승을 기록하며 창단 이후 최다승을 거둔 바 있다.

오세일 감독은 "새해 첫날 경기에서 이겨서 출발이 좋은 것 같다."면서 "광주도시공사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선수들이 빨리 적응해 앞으로 남은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